



남아프리카공화국 Republic of South Africa

☞ 일반정보

- * 수도 : 프레토리아(행정), 케이프타운(입법), 블루폰테인(사법)
- * 주언어 : зулу어, 코사어, 아프리카스어, 페디어, 영어, 츠와나어, 소토오, 총가어 등
- * 인구(천명) : 44,187
- * 1인당 GDP(US\$) : 12,100
- * 화폐단위 : 랜드(R)

☞ 종교

- * 기독교 : 73.52%
- * 그 외 종교 : 전통종교 15%, 무종교/기타 8.08%, 회교 1.45%, 힌두교 1.25%, 유대교 0.7%, 불교 0.03%

☞ 기도제목

- * 백인 통치와 인종차별 정책에서 비인종차별 민주주의로 비교적 평화롭게 이행되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 교회들이 차별, 고통과 억압의 지난 세기들을 청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불굴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기도하자. 기독교인들이 더욱 깊이 화해하고 새로운 사회 내에서 건전한 균형을 잡도록 기도하자.
- *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차츰 증가하는 범죄의 물결과 투쟁하고 있다. 경찰 병력이 미비하기 때문에 폭력 범죄가 공공연해진다. 이런 만연하는 문제들의 이면에 있는 원인들이 치유되고, 위기에 처한 어린이들과 많은 실업자들과 수감자들, 그리고 경찰들 가운데서 기독교 사역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자.
- * 남아프리카공화국 교회들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번창하도록 기도하자. 더 많은 교회들이 장단기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단체들과 활발하게 협력하도록 기도하자.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통화 가치가 하락하지만, 선교에 필요한 재정이 지원되도록 기도하자.

△문서자료출처 ①일반정보... 한국컴퓨터선교회(kcm.kr) 2006선교지도 / ②종교·기도제목... '기도24365(www.prayer24365.org)' 자료요약

“만델라와 월드컵” --

출처 : (조선오피니언)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6/11/2010061102053.html
박해현 논설위원 hhpark@chosun.com (2010.06.11)

[만물상] 만델라와 월드컵

1995년 6월 24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엘리스 파크 경기장에서 럭비 월드컵 결승전이 열렸다. 접전이었다. 주최국 남아공 럭비 대표팀이 뉴질랜드 대표팀을 연장전 끝에 꺾었다. 6만2000여 관중이 일제히 환호를 지르며 서로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흑백 인종 차별로 악명이 높았던 나라에서 흑인과 백인이 하나가 된 날이었다. 관중은 귀빈석을 향해 “넬-슨, 넬-슨”을 외쳤다. 럭비 월드컵을 통해 흑백 화해를 이루어낸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꿈이 실현된 순간이었다.

▶백인 정권의 인종차별정책에 저항해 27년6개월 동안 수감됐다가 풀려난 만델라는 1994년 대통령에 당선됐다. 그는 백인을 단죄하는 대신 ‘흑백 단합’을 내세웠다. 남아공에서 럭비는 백인들이 즐기는 운동이었고, 흑인은 축구를 더 좋아했다. 흑인 단체들은 백인 우월주의 상징인 럭비 대표팀 ‘스프링복스’를 증오해 해체하려고 했다.

▶그러나 만델라는 오히려 ‘스프링복스’를 살려내 선전을 당부했다. 월드컵 결승전 날 만델라는 ‘스프링복스’ 유니폼을 입고 나왔다. 그의 관용에 감동한 백인 선수들은 투혼을 발휘했고, 럭비 월드컵 우승은 ‘만델라 마법’으로 불렸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만델라는 스포츠를 통한 화해와 단결의 힘을 재확인하기 위해 이번에는 축구 월드컵 유치에 직접 나섰다.

▶2000년 독일과 경쟁했다가 1표 차이로 패해 눈물을 삼켰던 남아공은 2004년 마침내 아프리카 최초의 월드컵 개최권을 따냈다. 당시 86세의 만델라가 FIFA 집행위원들에게 일일이 호소한 덕분이었다. 개최지 발표 현장에 있던 만델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치 50세 청년처럼 느껴진다”며 월드컵 유치를 회춘(回春)의 기적에 비유했다.

▶만델라는 축구 황제 펠레에게 “스포츠에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했다.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힘, 사람들을 단결시키는 힘이 있다. 인종 간의 장벽을 부수는 일에는 스포츠가 정부보다 더 강력하다.” 2010년 남아공월드컵이 시작됐다. 스포츠를 이용해 피부색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단결시킨 만델라의 마법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을 외치는 동안엔 하나가 되리라. 만델라가 꿈꾼 월드컵은 ‘공 하나로 인류가 하나 되는 축제’다. 승패에만 집착하지 말고 만델라의 눈으로 지구촌 축제를 즐겨보면 어떨까.





제19회 FIFA 월드컵 :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상식—



▲2010 남아공 월드컵 엠블럼



▲마스코트 : 자쿠미(ZAKUMI)



◀공인구 : 자블라니(JABULANI)

‘자블라니(JABULANI)’라는 말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용어 가운데 하나인 зулу어로 ‘축하한다’는 의미이다. 자블라니는 다른 축구공들이 흔히 오각형 12개, 육각형 20개로 이루어진데 비하여 8개의 특수 폴리우레탄 조각을 이어붙이는 공법으로 만들어서 지금까지의 축구공 중에서 가장 완벽한 구형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검은 색의 사람 문양은 아프리카의 유명한 문화유산인 샌(San:부시맨)족의 암벽화를 형상화 하였고 자전거 킥(오버헤드 킥)을 하는 동작은 아프리카 축구의 천부적인 재능을 잘 표현하고 있다. 공의 문양은 현대적인 축구를 상징하며 FIFA와의 깊은 연관성을 표현하고 힘껏 솟은 공은 지구촌을 돌아 최종 목적지인 아프리카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탕에 있는 화려한 칼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국기를 상징하며 밝고 붉은 빛은 불같은 열정으로 세계로 발전하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상징한다.

2010 남아공 월드컵의 마스코트 자쿠미(ZAKUMI)는 자(ZA)+ 쿠미(KUMI) 합성어로 자(ZA)는 우리나라는 KR, 미국은 US로 짧게 표기하는 것처럼 남아공은 ZA로 표기하여 여기에서 온 ZA와 아프리카 언어에서 KUMI는 숫자 10을 뜻한다고 한다. 또한 코사어(Xhosa)로 자쿠미는 “이리 오세요”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동물 가운데 덩치가 크고 사나운 5마리의 동물 사자, 코끼리, 코뿔소, 버팔로, 표범을 ‘빅 5(Big 5)’라고 하는데 그 중 마스코트를 표범으로 선택하였다. 자쿠미의 생일은 1994년 6월 16일이라고 하는데 1994년은 남아공이 인종분리정책이 종식된 해이고 6월 16일은 인종차별 종식을 촉발시킨 소웨토(Soweto:영화 ‘파워 오브 윈’의 배경이 된 타운십)의 민중봉기 기념일로 인종차별로 유명하던 과거의 남아공을 끝내고 새롭게 태어난 남아공에서 월드컵이 열린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Groups			
Group A	Group B	Group C	Group D
South Africa	Argentina	England	Germany
Mexico	Nigeria	USA	Australia
Uruguay	Korea Republic	Algeria	Serbia
France	Greece	Slovenia	Ghana
Group E	Group F	Group G	Group H
Netherlands	Italy	Brazil	Spain
Denmark	Paraguay	Korea DPR	Switzerland
Japan	New Zealand	Côte d'Ivoire	Honduras
Cameroon	Slovakia	Portugal	Chile

◀2010년 남아공 월드컵 참가국

- * 아시아(AFC 4) : 대한민국, 북한, 일본, 호주
- * 아프리카(CAF 6) : 가나, 나이지리아, 남아공, 알제리, 카메룬, 코트디부아르
- * 유럽(UEFA 13) : 그리스,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세르비아, 스위스,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이탈리아, 잉글랜드, 포르투갈, 프랑스
- * 북중미(CONCACAF 3) : 멕시코, 미국, 온두라스
- * 남미(CONMEBOL 5) :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칠레, 파라과이
- * 오세아니아(OFC 1) : 뉴질랜드

■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은 2010년 6월11일부터 7월11일까지 31일간 총 9개 도시 10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회	연도	개최국	우승국	스타 플레이어	회	연도	개최국	우승국	스타 플레이어
1	1930	우루과이	우루과이	기예르모 스타빌레	10	1974	서독	서독	요한 크루이프
2	1934	이탈리아	이탈리아	리카르도 사모라	11	1978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마리오 캠페스
3	1938	프랑스	이탈리아	주세페 메아차	12	1982	스페인	이탈리아	파올로 로시
4	1950	브라질	우루과이	지지뉴	13	1986	멕시코	아르헨티나	디에고 마라도나
5	1954	스위스	서독	페렌즈 푸스카스	14	1990	이탈리아	서독	로타 마테우스
6	1958	스웨덴	브라질	펠레	15	1994	미국	브라질	로베르토 바조
7	1962	칠레	브라질	가린샤	16	1998	프랑스	프랑스	지네딘 지단
8	1966	잉글랜드	잉글랜드	바비 찰튼	17	2002	한국-일본	브라질	호나우두
9	1970	멕시코	브라질	프란츠 벤텐바워	18	2006	독일	이탈리아	파비오 칸나바로